

. 2

7.

小岩

# 작지만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 간직했던 '소암(小岩)마을'

송도비치호텔일대는  
불과 5년전만해도 40여가구가  
모여살던 여촌마을이었다.  
곡부공씨 후손이 17대째 정착  
해 살고있는 소암마을이다.

동춘1동 송도비치호텔 일대는 예전엔 소암마을(小岩村)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었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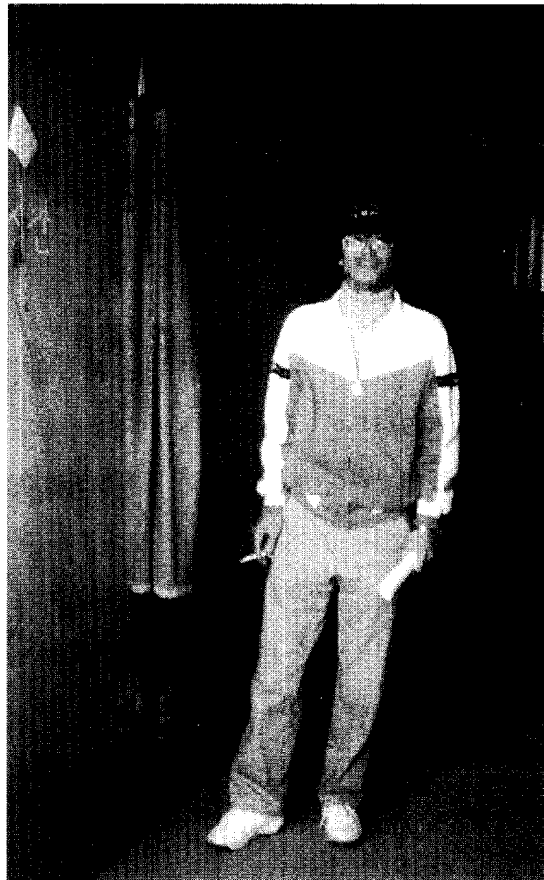
현재는 호텔을 비롯해 각종 음식점이 들어서 있는 관계로 이곳이 자연부락이었다는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변모해 버렸다. 그나마 흔적이라곤 호텔 인근에 허름하게 남아 있는 4채의 가옥과 조그마한 발뽀기 뿐이다.

하지만 이 일대는 불과 5년전만 해도 40여가구가 오붓하게 살던 아담한 자연부락이었다.

연수지역 대부분의 원주민 마을이 그렇듯이 이곳 역시 마을이 생성된 시기는 대략 4백여년 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마을의 원주민인 곡부(曲阜)공씨 후손이 현재 17대째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곳은 송도유원지 맞은편에 있던 큰 부락인 대암(大岩)마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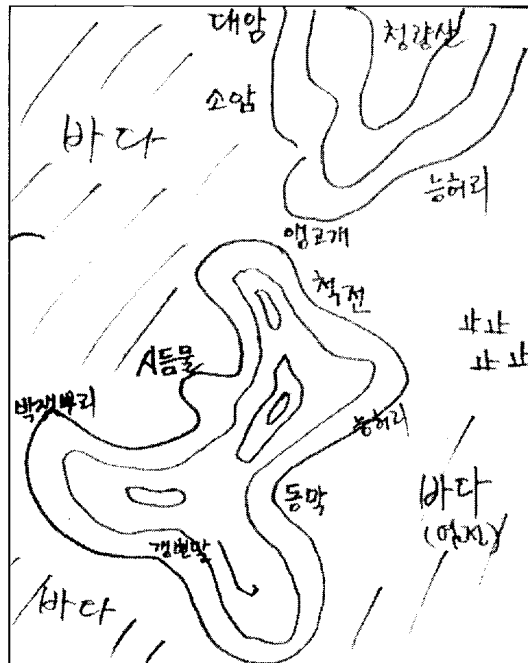


주민 일부가 넘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마을이름도 대암(큰 바위)의 작은 마을이라 해서 소암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이라는 게 이곳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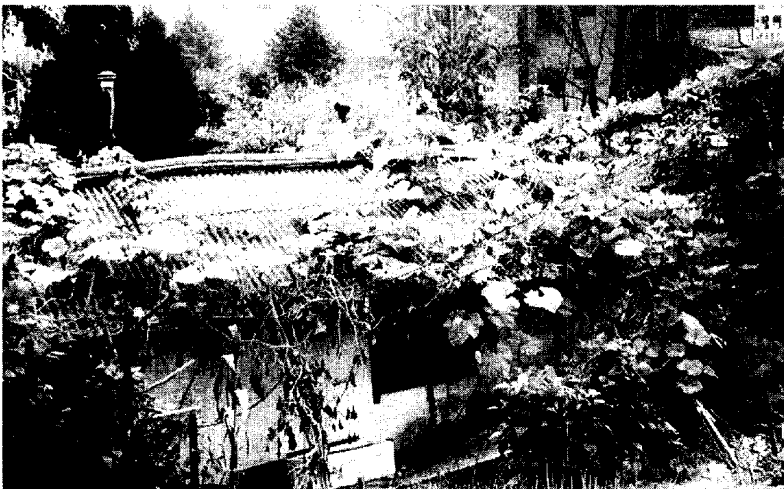
## 대암마을

송도유원지앞 상륙작전 기념관 아래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 청량산의 바닷쪽 기슭인 이곳 대암마을은 이미 자취를 찾기 어렵다.



개펄을 끼고 있는 마을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곳 주민들의 경제생활도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활형태였다.

개펄에 나가면 온갖 조개류를 풍성하게 거두어들이 수 있는 관계로 이곳 주민들에게 개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송도일대의 독특한 어로장비인 건간망(建干網)은 구입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영세한 주민들은 설치할 엄두를 못냈고 주로 부자들이 개인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 개펄에 건간망을 치면 매일 많은 고기를 손쉽게 잡아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에 건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을의 유지격이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농업은 이곳이 천수답(天水畝)인 관계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땅을 소유한 주민이 많지 않은데다 가뭄이 잦아 농사를 짓는 주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게 이곳 원주민들의 기억이다.

이런 경제생활과 함께 이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도당제가 있었다.

이곳 원주민들에 따르면 대암과 소암마을의 경계지점(현재 송도갈비 뒷편)에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는 도당체가 큰 소나무아래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

매년 늦가을 쭈 대암과 소암마을 유지들로부터 돈을 모아 음식을 장만한 뒤 마을의 연장자들이 경기도



동막의 도당굿 만큼이나 대암·소암일대의 도당굿도 유명하였는데 대암과 소암마을 경계지점(현 송도갈비)에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는 도당채가 있었다.

지방의 이름난 무당을 불러와 이곳에서 도당제(都堂祭)를 지냈다고 한다.

이 도당제는 보통 3~4일동안 진행됐는데, 도당채가 모셔져 있는 소나무 근처엔 금줄을 둘러쳐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고 한다.

이 도당굿과 도당채는 70년대 후반경 도당제를 지내던 세대가 사라지며 미신이라는 이유로 없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개펄에 나가 조개와 물고기를 잡고 매년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며 이웃끼리 오손도손 살아온 이 마을 역시 80년대 초부터 각종 개발에 밀려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우선 송도매립지 공사로 개펄이 크게 줄면서 주소득원이었던 조개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또 건간망도 사라지고 만 것이다.

여기다 90년대초부터는 송도비치호텔 일대의 땅을 외지인들이 매입해 예전 가옥을 헐고 음식점 등을 만드는 바람에 순식간에 옛 마을의 자취가 사라졌고, 이에따라 주민들도 뿔뿔히 흩어지게 됐다는 게 이곳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이곳 원주민인 공유식씨(66)는“송도매립공사와 음식점 난립으로 인해 4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마을의 본래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라며“이젠 고작 10여명의 원주민이 이곳에 살거나 식당을 경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함형조>

### 소암마을과 대암마을

송도유원지 맞은편이 대암 송도비치호텔 일대를 소암마을이라 했는데 큰 부락인 대암마을 주민이 넘어와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 소암이다.